



# ‘근대정신의 산실 産室 조선광문회, 자취를 기리자’

지난 8월 24일, 서울시는 청계천변에 ‘베를린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독일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옮겨와 1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해 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분단역사를 가진 독일 베를린시가 자체 예산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청계천 복구공사와 함께 이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곳은 조선광문회가 있던 곳’임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지난 1969년 문화재로 보존해 달라는 각계의 뜻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의 명분으로 옛 조선광문회 건물이 철거돼 현재는 작은 표석만이 남아 있다. 그것조차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더미에 묻혀 보이지 않거나 사람들 발에 치이는 처지가 됐다.

서울시의 ‘베를린 공원’ 조성계획 발표 직후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동서문화사 고정일 대표는 “영광스러움보다는 고통으로 기억될 분단을 나타내는 공원도 만드는 마당에 민족정신이 담긴 광문회 터를 기리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로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까지 출석했지만 ‘서울시가 알고도 그럴 리가 없다. 그 자리가 그런 곳인 줄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뜻있는 전문가들은 서울시 곳곳에 어떤 유적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세워둔 표석 하나 찾지 못해 청계천 복원단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당국자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 역시 현재 베를린 광장이 조성되는 곳 옆에 4~5평의 공간을 만들어 표석을 옮긴다는 정도의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 문화계 반응 역시 시큰둥하다.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표석 하나 옮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14일, 이런 현상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가 출판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열렸다. 발제에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조선광문회 복원을 위한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조선광문회 터 복원을 위한 최초의 모임을 계기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면 이를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복원을 위한 여러 방법론적 대안이 나왔다. 옛 모습으로 광문회건물을 복원하고 그 안에 육당 최남선 선생의 유물과 그곳에서 복간한 잡지를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청계천공사가 완공되고 젊은이들이 그곳을 산책할 때.....

‘이곳이 그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만 알게 해도

조선광문회, 복원의 의미는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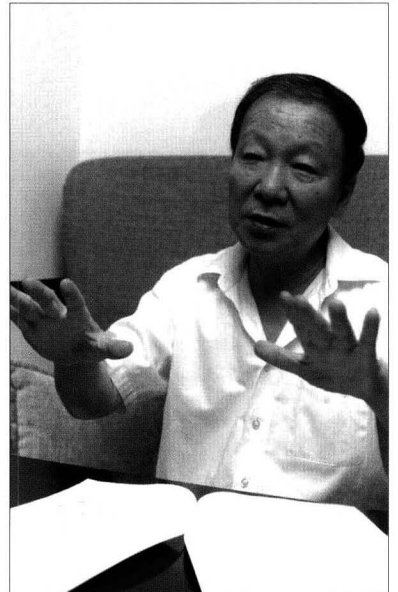
다. 또 당시 광문회를 드니들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선구자들을 조형물로 기리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면서 육당 최남선과 조선광문회 터 자체의 복원이라는 두가지 쟁점을 두고 참석자들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광문회' 라는 간판을 걸기는 했으나, 그 안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근대와 독립정신에 바탕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감안, 복원사업은 개인의 행적보다 터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선광문회 복원을 추진하는 조직의 구성과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세우는 일이란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프랑스 북쪽 항구도시에 세워져 있는 '칼레의 시민' 동상을 타산지석으로 드는 전문가들 또한 적지 않다. 백년전쟁 초기, 프랑스를 지배했던 영국군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칼레 시민을 대표해 6명의 목숨을 내놓으면 나머지 시민 모두를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시장을 비롯해 칼레를 대표하는 귀족, 부호들이 자진해 칼레 시민 모두를 구했다. 훗날, 로망에 의해 6인은 동상으로 조각되고 현재에도 영웅으로 기려지고 있다. 이것이 '칼레의 시민' 유래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되살리고 기리는 데서 한 나라의 문화적 맥은 면면히 이어진다. 독립과 문화,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근대정신을 일깨웠던 곳. 청계천변은 특히 선구자들에 의해 근대출판이 태동한 곳이다. 오늘날 한국 출판문화의 산실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출판의 발원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있는 이들의 우려가 십분 설득력을 지닌다. 고정일 대표는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청계천공사가 완공되고 젊은이들이 그곳을 산책할 때 '이곳이 그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만 알게 해도 조선광문회 복원의 의미는 깊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을 위함도, 단체를 위함도 아닌 국가적·문화적인 과제란 지적이다. **◆◆**

취재 홍이현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 동서문화사 고정일(64)대표 위
- 1969년 철거 당시 조선광문회 건물과 현재 그 터를 나타내는 표석 아래



• 9월 1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선광문회 터 복원을 위한 간담회